

# 나주시 '빛가람 복합센터' 건립 속도

### 24~25일 건축 설계 공모 접수 4월 18일 당선작 발표 혁신도시 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나주시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빛가람 생활SOC 복합센터' 건립에 속도를 낸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여가생활 향유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는 '빛가람 생활SOC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 보육·복지·의료·문화·체육·공원 등 시민의 일상적 편의와 안전을 증진시키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센터는 빛가람동 383번지에 건축 연면적 4480㎡(1355.2평),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건립되며 90~100면의 주차공간을 갖출 예정이다. 센터건립에는 나주시가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공모 선정을 통해 확보한 국비 79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58억원을 투입한다. 센터에는 어린이도서관, 돌봄센터, 상생푸드마켓, 장난감 도서관을 포함한 육아지원시설, 아동보육·문화·체험·먹거리 분야 시설과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선다.

설계공모 참가 업체 등록은 오는 24~25일 오후 2시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오는 4월 18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합센터 예정설계가는 6억5786만원이며 당선작 선정이 완료되면 180일 이내 완료를 목표로 설계용역이 진행된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청 누리집(www.na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설계 공모를 통해 명품 혁신도시 조성을 앞당기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실용적 복합공간을 건립할 계획"이라며 "시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 함평군, 금호타이어 함평 이전 지역활로 모색

### 전담팀 구성 첫 회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전남 함평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함평군이 사전준비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빛그린국가산업단지와의 연계한 지역발전 대응에 나섰다. 함평군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함평 이전 지원 전담팀 첫 회의를 지난 17일 열고 공장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전담팀은 이병용 부군수를 단장으로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실장, 일자리경제과장 등 8명으로 꾸려졌으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함평 이전과 관련, 지원 사항을 논의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했다. 회의에서는 빛그린산업단 인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근로자 주거단지 1400세대 조성, 산업입지

선제적 대응을 위한 해보농공단지 확장, 나산?해보면 전원주택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 추진, 폐열을 이용한 특산물 재배방안 강구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특히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 등 자동차산업 관련 완성차·부품·연구개발 등 고부가가치 업종들의 연계 입주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함평 이전을 통한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동반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한편 금호타이어(주)가 LH 측에 공장 이전부지 계약보증금을 지난 1월 납부하고 광주광역시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빛그린산업단 이전에 동의함에 따라 공장의 함평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금호타이어는 월여면 빛그린산업단 일원에 1조원 규모의 친환경 타이어 생산 공장을 짓게 되며 2200여명의 고용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추운 겨울 이겨내고 활짝 핀 지리산정원 '설강화'



희망과 인내의 꽃말처럼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활짝 핀 '설강화'가 활짝 피어 구례 지리산정원을 찾는 겨울 관광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봄의 선구자로 불리는 은백색의 꽃인 설강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한해 제일 먼저 피는 꽃으로 알려져 있다. <구례군 제공>

## 해남군, 겨울대파 가격 하락 시장격리 추진

### 10ha면적, 수요조사 후 산지폐기 재배면적 늘고 기상 좋아 생산량 ↑

해남군이 대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겨울대파 시장격리를 긴급 추진한다. 올해 대파가격 하락은 한파와 폭설로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지난 2020년산 '금(金)대파'의 영향

으로, 전국적으로 대파 재배면적이 대폭 증가한 결과로 보인다. 해남군은 2021년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240ha로 전년 164ha보다 46.3%가 증가했으며, 생육기 기상여건 호조로 생산량 또한 증가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감소로 도매가격은 평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에서는 도내 겨울대파 재배면적 중 200ha를 시장격리 할 계획이며, 이 중 해남군 해당면적은 10ha이다.

해남군은 지역 겨울대파 주요 산지인 문내면과 황산면을 중심으로 계약재배 면적을 제외한 58ha를 대상으로 겨울대파 시장격리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장격리는 농가별 최대 3000㎡까지 ㎡당 1795원(평당 5932원, 자부담금 20% 포함)을 지원기준으로 2월 중 도매시장 가격이 3월 연속 1024원(kg당) 이하이거나 전남도에서 별도 추진을 결정할 경우 산지폐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현대삼호중 노사, 임금교섭 타결...기본급 7만1000원 인상

현대삼호중공업 노사가 '2021년 임금교섭'을 마무리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17일 회사 생산관 앞에서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노사간 '임금 조정안'이 66.5%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15일 자정까지 이어진 마라톤협상에서 기본급 7만1000원(호봉 승급분 포함) 인상, 생산성 향상 및 경영위기 극복 격려금 200만원 지급, 무재해 기원·안전문화 정착 격려 금품으로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등에 합의했다.

제도개선팀을 운영해 성과급과 직무환경수당 등 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추진하고 고용과 노사 관계 안정, 사내협력사의 처우 개선 등에도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현대삼호중공업 한 관계자는 "최근 조선업계는 원자재가 급등, 인력 부족 등으로 위기의 마지막 고개를 넘고 있다"며 "많은 조합원이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 성장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 '폐기 현수막이 에코백으로'...신안군, 재활용 앞장 눈길

"폐기 현수막이 에코백으로 태어났다." 신안군이 버려지는 물건을 새롭게 디자인해 가치를 높인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재활용)을 추진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연간 수천 장이 넘는 폐현수막 대부분은 폐기물로 소각 처리되고 있다. 폐현수막 조각은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행정 인력과 적지 않은 예산마저 투입된다. 군은 이런 문제점을 없애고자 읍면의 여성단체 등과 협조해 폐현수막 상태를 분류해 '에코백(친환경 장바구니)'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용 마대'로 제작하고 있다.

군은 폐현수막 재활용률 100%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났다. 신안군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올해는 폐현수막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폐현수막으로 만든 장바구니.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